

## 초고층 주거복합아파트에서의 유비쿼터스 시설/장치 사용실태 분석\*

홍 형 옥 (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)

유 병 선\* (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)

김 양 현 (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석사과정)

본 연구는 최첨단 설비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높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고급 초고층 주거 복합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시설/장치의 사용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를 위해 거주자의 유비쿼터스 사용정도 및 그 중요도를 측정하였다.

연구방법은 초고층 주거복합아파트단지의 거주자 총 60명을 면접(interview)하여 이들의 유비쿼터스 사용정도와 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. 조사대상 단지는 DW건설사의 A, B, C단지 및 S건설사의 D단지이었다. 면접기간은 2005년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수행되었다.

첫째, 조사대상단지의 유비쿼터스 시설/장치 사용도는 5점척도에서 2.15-2.98로 그 사용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. 단지마다 5-7개 정도의 유비쿼터스 시설/장치가 있으나 이중 사용도가 있는 시설은 단지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로 나타났다. 이것은 유비쿼터스 시설/장치 설치비가 고가인 것에 비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부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. 조사과정에서 어떤 거주자는 그러한 시설/장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응답을 보여 초고층주거복합아파트의 최첨단설비에 따른 적절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둘째, 유비쿼터스 시설/장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거주자의 의견을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3.80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.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, ABC단지의 거주자는 3.77, D단지 거주자는 3.83으로 D단지 거주자가 유비쿼터스에 대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본 연구의 결과 사용도는 조사대상단지 모두 낮게 나타났으나, 이를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비쿼터스 시설/장치가 필요 없는 시설/장치라기 보다는 생활을 지원하는 이들 시설/장치를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. 본 연구는 최근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좀더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도구로 설치되고 있는 유비쿼터스의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유비쿼터스의 설치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. 따라서 향후 건설회사에서는 유비쿼터스를 공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.

\* 본 연구는 2005 BK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